

제2차 최고경영자세미나

I. 인사의 말씀

II. 디지털 경제시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III. 무한경쟁시대의 경영패러다임

-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지난 9월 27, 28일 양지 파인리조트에서는 (사)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의 제2차 전기용품최고경영자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제2차 최고경영자세미나의 조찬회 모습.

“기술력과 정보력을 지닌 기업만이 생존”



글·김명한 상근 부회장
(사)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우리나라 전기용품생산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전산업을 이끌어 가시는 최고경영자 여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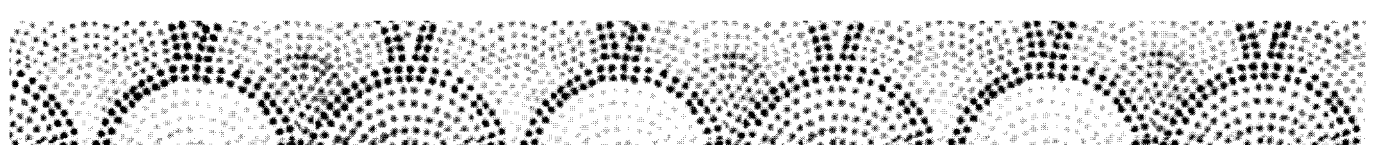
우리 협회에서 오늘 실시할 2000년도 제2차 전기용품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어 뜻깊은 세미나의 새로운 장에 동참 하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분야 또는 어느 상품을 막론하고 품질의 중요성은 여기서 더 강조할 필요가 없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전기용품은 품질에 더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제품은 품질이 불량이면 단지 그 사용가치만 상실하는 것이지만, 전기용품은 사용가치의 상실은 물론 여기에 추가하여 누전, 감전 또는 화재와 같은 크나 큰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위험성이 따르고 동시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 지구상의 120여개국을 넘는 나라가 안전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까닭이며 그리하여 국제적인 안전인증제도로 발전되어 지금은 널리 일반화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발전 속도는 그 어느 분야의 제품보다도 개발의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전기용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 훈련 또한 절실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지금 실시하는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비롯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 및 품질경영교육과 각종 제품별 기술 실무교육 그리고 전기용품 무역실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참여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협회가 2000년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외 안전인증에 대하여 우리 협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류없이(paperless) 국민과 정부가 바라는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여 제조업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 비용절감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완벽한 품질인증체제를 갖춘은 물론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전기용품안전 인증과 같은 국내외 안전인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보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제안전규격인 IEC 규격을 위시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요건 및 각종 관련 통계 따위와 같은 모든 관련 자료를 수시로 입력하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이 힘들게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하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여러분의 귀한 인력을 보전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경비를 절감하므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의 의지와 힘이 집결된 여러분을 위한 비영리 서비스 단체입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발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여러분과 함께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 입니다.

21세기 초두에 접어든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기술력과 정보력을 갖춘 약동하는 우수한 기업육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협회는 교육의 질을 좀 더 보다 높이고, 양질의 정보를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제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오히려 모자란다고 합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삼아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직장가 가정에 많은 진전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0. 9. 27

(사)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

상근부회장 김 명 한

디지털 경제시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I. 디지털 시대의 경제환경

1. 『디지털 경제』의 도래
2.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경제원리

II. 경제주체의 역할 및 경쟁방식의 변화

1. 경제주체의 역할 변화
2. 경쟁 방식의 변화



글·이남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III. 디지털 경제와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

1. 디지털 경제의 전제가 되는 기업구조개혁의
신속한 마무리
2.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경쟁정책적 대응
및 경쟁법제의 정비
3.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경쟁정책 추진

IV. 맺음말

“ 디지털 시대는 새제품, 새 시장, 새 고객 확보를 위한 스피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며
 순발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기업만이 디지털 시대의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없으면 디지털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

1. 디지털 시대의 경제환경

1. 『디지털 경제』의 도래

가. 디지털 경제란

-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는 미국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는 신조어이나 개념이 뚜렷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상태
- 흔히, 생산·유통·소비 등 제반 경제활동에 디지털기술이 도입되고 인터넷 등 전세계적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경제운영시스템 전반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

- 정보통신산업(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이 디지털 경제 도래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

※ digital : “digitus finger”(손가락을 꼽다, 계수화하다) 즉 0과 1의 조합을 통해 모든 정보(숫자, 문자, 소리, 영상)를 표현하는 것으로 아날로그와 대비되는 말
 “아날로그”는 모든 신호(음성, 화상 등)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이용하여 표현·측정하나, 디지털(방식)은 정보를 디지털(0과 1의 조합)로 바꾸어 처리·전송·가공 및 활용하는 점이 특색임

※ 디지털 기술의 장점 : 변혁의 요인

- 광속성 :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
- 무한반복재현성 : 반복사용으로 인한 정보손실 없음
- 조작, 변형의 용이성 : 정보가공이 쉽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가능
- 쌍방향성 : 정보의 쌍방향 전달이 용이
- 단일성 : 모든 신호를 동일 매체로 저장, 전송, 재생가능

나. 디지털화의 특징(무엇이 달라지나?)

- 활동 공간의 확대
-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건물 등 경제활동의 공간적 제약이 존재

⇒ 디지털 경제는 『사이버공간』이라는 무한대의 새로운 활동공간을 제공

특 집 II. 최고경영자세미나

□ 경제·사회활동 시간의 확대

○ 농경사회는 밤과 낮, 산업사회는 8시간의 근무가 보편적 근로시간

⇒ 디지털 시대에는 경제·사회활동이 24시간으로 확대

□ 경제·사회활동의 고속화

○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이 운송수단 등 물리적 이동속도에 제약을 받음

⇒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상에서 지식·정보의 교환이 빛의 속도로 실시간(real time)에 이뤄져 거래속도가 빨라짐

※ 포춘(Fortune)지는 지난 1999년 5월호 기사에서 새로운 e-비즈니스의 e-CEO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속도(speed)를 들어 빠른 경영여건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만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암시

□ 다중 대 다중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농경사회, 산업사회에는 대면 또는 1대 다수의 의사전달방식이 보편적이었으나

⇒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한 다중 대 다중의 쌍방향 의사전달 방식으로 발전

□ 콘텐츠의 디지털화

○ 음성, 데이터, 이미지, 지식, 정보 등 콘텐츠를 디지털화

⇒ 디지털화에 따라 압축, 저장, 전달이 용이해져 시·공간적 제약 극복으로 지식과 정보의 확산, 활용이 용이

다. 디지털 혁명(왜 혁명인가?)

□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 혁명은 디지털 기술과 정보네트워크의 접목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의 합리성을 결정하는 원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에 따라 경제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초래

□ 정보전달의 속도와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삶의 전 부문에 걸쳐 혁명적 변화가 야기

- ※ “디지털 혁명은 언어의 발견에 비유될 수 있는 새로운 대화방식의 발견에 해당” (Don Tapscott, “디지털 경제”, 1996)
- 부가가치 창출 원천이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과 정보’로 급속 대체되고 산업구조도 제조업중심에서 IT 산업중심으로 변화
- * ‘95~’99년간 미국 IT산업의 경제성장기여율 : 30%(미 상무성, 2000. 6)
- * 우리나라의 IT 산업 관련 주요 경제지표(삼성경제연구소, 2000. 8)
 - ‘99년 GDP성장 기여도 : 38.3%
 - 국내 IT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91~’99) : 24.3%
-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제품 생산 방식, 유통 방식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
 - 생산방식 : 대량생산(mass-production) ⇒ 대량맞춤생산(mass-customization)
 - * 생산자는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접근이 쉽게 되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여 제품을 차별화하려는 전략을 취함
 - 유통방식 :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보·상품·용역의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 기존 유통조직과 같은 중간조직 몰락 ⇒ 거래비용 감소로 소비자주권 실현
- 디지털 경제의 도래는 단순한 기술발달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 총체적인 문화사적 대변혁(인류사 3번째 혁명)
 - * [APEC 서울포럼](2000. 3. 31~4.1)에서 엘빈 토플러는 교육, 지식 및 인적자원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한국도 이미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인 정보화 사회의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지적
 - 다른 한편,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한 소득격차의 심화,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어두운 면도 부각

2.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경제원리

농경, 산업사회에서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예외에 속했던 경제원리들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새 경제 원리로 등장

가. 네트워크 효과

- 디지털 경제는 전기통신서비스, 컴퓨터 운영체제, 신용카드 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되는 경제체제

특 집 II. 최고경영자세미나

-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실제 네트워크와 가상 네트워크로 구분가능
- 실제 네트워크(real network) : 통신, 운송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화선, 철로, 전력망 등 가시적인 시설물이 존재
- 가상 네트워크(virtual network) : 물리적인 시설물은 없지만 서로 호환가능한 기술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의 모임을 의미
예) MS 윈도우 98을 사용하는 이용자 그룹, VHS방식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하는 사용자 집단 등
- 이러한 사업분야는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라고 불리는 수요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독점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특징
-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란 한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현상을 의미
 - 실제네트워크의 경우 : 전화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전화를 사용하는 효용이 증가
 - 가상네트워크의 경우 : MS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많은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MS 운영체계의 효용성이 증가
-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가진 제품의 경우 시간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변화는 S자 형태를 띠
 - 도입초기에는 판매가 부진하다가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면 제품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
 - 소비자들은 일정한 규모의 다른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지 않는 한 '모험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일정한 규모'를 특정제품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임계(臨界) 소비군(Critical Mass)이라 함
- ※ 시장에서 나타나는 단말기 무상제공, 무료 이메일, 증권정보 제공 등의 행위는 Critical Mass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 나. 승자전취(Winner takes it all)
 - 네트워크 효과는 임계소비군을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성공 기업이 모든 것을 차지하며, 실패한 기업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함의(含意)
 - 한 사람의 추가적인 고객이 다음 고객을 유치할 확률이 가속적으로 증가(Network Positive Feedback)

-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포지티브 피드백의 존재로 “Winner takes it all”의 시스템이 일반화
- 과점보다는 독점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크며 경쟁자가 임계소비군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운명에 처하게 됨

다. 수확체증의 법칙

- 산업사회에서는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의 법칙이 작용
- 수확체감의 법칙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요소의 증가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이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지칭
 - 즉 생산량을 늘릴수록 추가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
- 수확체감의 법칙은 대량생산시대의 경제분석의 기본틀이었으나 지식집약적 산업의 등장으로 도전을 받게 됨
- 20세기 후반부터 기술의 개발과 적용, 정보의 가공, 아이디어의 사용을 주로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 본격 등장
- 그러나 전통적인 산업분야, 즉 제조업분야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여전히 적용
- 지식집약적 산업은 수확체감보다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의 법칙이 작용
-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렸을 때 생산량이 생산요소의 증가율보다 큰 비율로 증가
 - 생산량을 늘려갈수록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
- 수확체증의 이유
- 지식산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비용은 막대하나 개발후 추가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움
 - 예)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경우 윈도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5,000만 달러였으나 개발이후 디스크 생산비용은 개당 3달러에 불과
-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수요자가 많아질수록 소비량이 커짐
- 소비자 타성(Customer Groove-in)
 - 지식·정보재는 소비자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제품의 사용에 익숙해지면 다른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속성
- 수확체증산업에서는 초기에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투입되더라도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현명

- 그에 따라, 가격인하보다는 기술혁신이 경쟁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되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고 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동태성(動態性)이 일반적 특성
- 라. 선발자가 유리(First mover advantage)
 -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제품이 더욱 시장에서 앞서 나가게 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
 - 일단 창출된 지식과 정보는 그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계속 증식시켜 나가는 자기증식의 특성을 보유
 - 디지털의 물결은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도태되면 영원히 따라 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암시

II. 경제주체의 역할 및 경쟁방식의 변화

1. 경제주체의 역할 변화

인터넷의 발달은 산업 주도권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시키게 되고 이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기업의 변화
 - 대량생산 방식을 이끌고 왔던 대기업은 더 이상 디지털 시대의 주도적 선도자가 되기 어려움
 - 199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벤처기업이 디지털혁명을 주도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
 - * 창의력과 모험정신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에 강점을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
 - 기존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도 디지털 정보기술 산업,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추진
 -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대형 합병과 관련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급증
- 소비자의 역할과 소비환경도 많은 변화가 야기

○ 인터넷을 통해 풍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주역, 기업성패의 최종 심판자로서 그 위상이 바뀌고 있음

- 생산된 제품의 『수동적인 이용자(Taker)』가 아니라 기업에 특정제품의 사양을 요구하는 『적극적 소비자(Prosumer)』의 역할을 수행

*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관심(care) 수준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

□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음

○ 디지털 시대의 정부는 기업, 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가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원활히 창출, 공유,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과 여건을 정비하고

- 각 주체간의 경제활동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

○ 정부기능 수행에 있어서 정부자체의 디지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과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

○ 디지털 정부는 개방화·분권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소비자단체·시민단체와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함

- 시민과 민간단체들을 더 이상 교육대상, 계도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 오히려 수평적 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자발적 참여와 신뢰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2. 경쟁방식의 변화

□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은 산업시대 시장의 모습이었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새 제품, 새 시장, 새 고객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와 속도경쟁이 시장의 모습

○ 지금까지의 기업간 경쟁은 대량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거나 이러한 가격 인하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내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음

- 경쟁자를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배제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른바 독점을 통한 이윤추구 시도가 늘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

□ 그러나 디지털시대 경쟁에서 승자가 되려면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특히 다음 점들을 유념해야 함

○ 첫째, 디지털시대는 새 제품, 새 시장, 새 고객확보를 위한 스피드 경쟁이 시장의 모습

- 디지털은 그 기본 속성이 모든 정보를 1 아니면 0으로 순간적으로 인식하여 구분해내는 과정을 거침

- 시장참여 기업들의 승패도 이처럼 신속하게 결말이 나기 때문에 스피드는 디지털시대의 또 다른 이름
- 순발력과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벤처기업이 종전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재편되는 것도 디지털 시대의 경쟁 방식을 보여줌

※ 인터넷 업계에서는 “웹이어(Web year)” 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음

- 웹이어는 36일을 지칭하는 데 “1년 = 365일”이란 현실 세계의 시간법칙과 달리 인터넷 업계에서는 36일 이면 해(year)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
- 마이크로칩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양이 매년 두 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은 정보 처리 속도가 광속으로 이루어져 가는 디지털 시대의 한 단면을 잘 설명

○ 둘째, 디지털시대에는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생명

-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지식과 정보에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가공하는 능력과 아이디어가 없으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움

○ 셋째, 디지털 경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임계소비군”(critical mass)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

-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군을 확보하게 되면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 선발기업의 제품사양이 사실상 당해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고객 선점이 시장에서의 성공의 필수조건

※ 네트워크의 가치는 연결된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메트칼프의 법칙(Metcalfe's Law)』은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들이 고객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이유를 잘 설명

III. 디지털 경제와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

1. 디지털 경제의 전제가 되는 기업구조개혁의 신속한 마무리

◇ 구조조정을 내년 2월 말까지 마무리짓고 디지털 경제에 신속히 접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추진해온 기업구조개혁을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 미 신경제 성공 비결 : 경제구조조정 ⇒ 효율성 제고 ⇒ IT 인프라 구축 ⇒ IT 투자 확대

가. 부당내부거래 근절

- 부당내부거래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의 핵심수단으로서
-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박탈하고, 우량기업의 자원을 부실계열사로 유출시켜 기업집단의 핵심 역량을 약화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 계열회사 발행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등의 고가 매입
- 풀자금 등의 무이자 대여, 할부금융대금의 지연이자 과소 수령
- 공장용지분양, 건설공사, 용역 등의 대금 미수령 등

- '98년 이후 7차례의 조사를 통해 총 25조7,650억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고 2,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단위 : 억원)

	30대 그룹	친족분리회사	공 기 업	합 계
지원성거래	242,932	10,786	3,933	257,651
과 징 금	2,019	75	37	2,131

- 부당지원행위가 이해관계자에 의해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 1~1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도입(99.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 현재 4대 기업집단에 대해 분사기업 부당지원, 위장계열사 등 변칙적 탈법행위에 대해 조사중
- 2001. 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연장 추진

나.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 상호채무보증은 금융자원의 편중배분과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 초래 등의 폐해 초래
- IMF 경제위기시 개별기업의 도산 → 그룹 전체의 도산 → 금융위기 → 외환위기로 증폭되는 뇌관 역할
- '98. 4월부터 신규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채무보증은 2000. 3월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공정거래법 개정('98. 2)
- 그 동안 기업의 조기 해소노력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과다한 보증요구관행을 개선한 결과
- '97년말 33.6조원의 채무보증액중 해소시한이 2000. 3월말인 채무보증은 완전 해소

	97. 12	98. 12	99. 12	2000. 3월말*
30대 집단 채무보증(조원)	33.6	12.3	4.3	0

특 집 II. 최고경영자세미나

* 해소시한이 2001. 3월말인 채무보증 1.5조원 제외

- 상호지급보증의 완전 해소로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축소
- 차입에 의한 방만한 확장경영과 선단식 경영이 억제, 연쇄도산의 위험이 감소
- 앞으로 기업집단간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인 신규채무보증을 철저히 금지

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가공자본 형성을 통해 계열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조래하므로 이를 억제키 위해 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
- 98. 2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를 위해 동 제도를 폐지
- 그러나 제도 폐지이후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의 심화, 형식적 부채비율 감소 등 부작용 조래
- 또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한건도 없었음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 출자한도 : 순자산의 25% 이내
- 시행일 : 2001. 4. 1(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소시한 부여)
- 동 제도가 무분별한 순환출자를 억제하되 구조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인정 기준 마련
-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 기존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법인에 대한 출자
- 외국인지분이 30% 이상 최대출자자인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 등
- 앞으로 30대그룹의 출자동향을 점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이 많은 그룹에 대해서는 해소기한 이전에 자율 해소토록 유도
- * 30대그룹의 출자한도초과액(2000. 4월 기준) : 19.8조원

2.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경쟁 정책적 대응 및 경쟁법칙의 정비

◇ 전통산업으로부터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질서 공백 및 혼돈상태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이 경쟁 법·제도를 정비

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규제개혁의 추진

- 우리경제의 디지털화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맞게 “디지털”이란 새로운 잣대로 기존규제를 과감히 개선
 -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물품운송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물류분야 관련규제 개선
예)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등록기준 대폭 완화 등
 - 과거에는 규제가 아니었으나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에 해당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
예) 사무실기준, 최저자본금기준, 설비·기술인력기준 등
 - 아울러 민민규제(民民規制)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감시강화
- ⇒ 각종 협회에 의한 인증, 자격증 부여제도 전반을 분석하고 과도한 규제여부를 평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

나.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

- * 전세계 기준 유통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후반 1%에서 2003년경 20%에 육박할 것임(OECD, 2000)
-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기존의 제조업 - 대리점 - 소비자 유통체계에 대변혁 초래
- 인터넷을 통한 판매방식이 급증하면서 대리점, 영업사원 등 중개조직 판매망이 점차 줄고 있음
- 대신 생산자가 중간 유통단계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판매하는 「사이버 직판」체제가 확산
- * 레스터 C. 서로우 美 MIT 교수는 그의 저서 “지식의 지배”에서 2010년까지 미국 소매 상점의 절반 가량이 폐점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
- 국내에서도 인터넷 유통업체(On-line 업체)와 대리점 등 기존 유통업체와의 갈등이 표출
- * 자동차 등의 인터넷 저가판매 방해행위 발생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특 집 II. 최고경영자세미나

-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시정
 - 디지털시대의 필수적인 통신설비 등 정보인프라에 접근을 방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 주요 IT 산업별 “필수설비”의 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필수 설비” 지정 방안을 검토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불안이 장애요인이므로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격히 시정하여 신뢰기반 확보
 - 99. 12월 제정된 OECD가이드라인 내용과 소비자의견을 반영하여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시행(2000. 1월)
 - * 운송비 부담주체, 반품·환불 조건 등 거래정보의 명시를 의무화
 -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승인(2000. 1. 28)
 - 통신판매 등을 규율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완·발전
- 다.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정책
- 디지털 경제에서는 지식·정보가 중요한 가치 창출원
 -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본·토지 등이 주된 생산요소
디지털 경제에서는 지식·정보가 구매, 생산, 유통 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요소
 - 기업의 성패가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아이디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는 아이디어가 더 희소한 생산요소
 - 따라서 기업들은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을 배타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
- ⇒ 지적재산권제도의 중요성이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새롭게 부각
-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사용권 인정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혁신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후발 기업의 진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쟁제한성도 함께 지니고 있음
 - 디지털 시대의 강력한 생존무기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함은 물론이지만,

-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적절히 규율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경쟁 당국의 중요한 과제이며 진정한 경쟁력 제고의 길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2000. 8. 30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

라.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대응

- 최근 미국·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이 증가하는 추세
- 시장의 글로벌화, 전자상거래의 보급과 더불어 경제활동상의 국내, 국외 개념이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
 - 기업활동은 물론 소비자 피해 문제도 그 규모·범위가 더욱 국제화
- ※ 우리 기업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
 - 미국 : 제일제당, 세원아메리카에 대해 라이선스 담합혐의로 13억원의 벌금 부과 ('96. 8)
 - EU : 국내 해운 3사에 대한 운송료 담합혐의로 739억원의 벌금부과 ('98. 9)
- 우리도 선진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추세를 감안하여 외국기업의 반경쟁행위 등에 대해서도 국내 경쟁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
- 우리가 디지털 시대 국제경제와 경쟁정책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3.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경쟁정책 추진

가. 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원

-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서 전문화·분업화가 심화되고 기업들은 핵심역량 중심의 재편이 불가피
- 분사화, 외주화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그에 따라 기술력을 지닌 벤처 기업군들이 대거 출현
- 벤처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케 되는 상황 도래
- * MS도 원래 벤처기업이었음
- * 이제는 벤처기업 중심인 전문 부품업체가 오히려 완성품 업체에 대한 지배도 가능 (예 : Intel의 CPU)
-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IT산업 중심의 벤처기업이 급성장하여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할 필요

특 집 II. 최고경영자세미나

- 기업구조조정 결과 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인력과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여 디지털 경제의 기반 마련
- 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대기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양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정위는 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적용
-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을 30%이내의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2000. 4월 시행령 개정)
- 공정위는 대기업의 벤처투자 동향을 세심히 관찰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

나. 전략적 제휴 등 새로운 기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시장의 개념과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경쟁이 지구촌 차원으로 격화되고,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확산
- 『디지털 경제를 지배하는 10가지 법칙』을 발표한 케빈 켈리의 주장처럼 디지털 경제는 전 지구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
- 기업들은 극심한 경쟁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와 초대형 합병을 활발하게 시도
- 최근 GM과 FIAT는 GM이 FIAT지분의 21%를 소유하고 FIAT는 GM지분의 5%를 보유하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양사간 공동판매, 부품사업 공동참여 계획을 발표
- 2000. 2월 미국 자동차업계 빅3사(GM, 크라이슬러, Ford)는 B2B사이트를 공동 개설
- 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노하우 등 핵심 경영자원을 상호교환·공유하며, 규모의 경제·상호학습 등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시도
-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기업들은 M&A도 적극 모색
- 국경을 초월하여 대형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초대형합병(Mega-meger)은 세계 산업을 재편
-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략적 제휴, 대형합병 등 세계적인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IV. 맺음말

-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지식의 축적과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요소가 될 전망
- 21세기 디지털경제 시대에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Digital or Die)
-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난 19세기말 세계사의 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여 범하였던 역사적 아픔을 또다시 겪어야 할지도 모름
- 디지털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변혁을 맞이하여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 제2의 개국을 이룬다는 각오로 정부·기업·개인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디지털 경제에 맞게 우리의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혁해 나가야 할 것
- 지구역사상 한 시대의 주역이었던 공룡이 사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 인류사회에 있어서도 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적응능력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디지털 사회의 조기 구현,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범 국가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정부차원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 정보인프라 확충, 벤처기업 활성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강구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무엇보다도 디지털 경제는 그 속성상 시장경제의 주역인 기업, 소비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
- 디지털 경제에서 통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거쳐 얻어진 경쟁력임
- 디지털 시대에는 오직 경쟁력있는 기업과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문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끔 변화되어야 함
-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우리의 힘을 강화해 나간다면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함

무한경쟁시대의 경영패러다임

-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

글·백영훈 원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나는 이른 아침 잠이 깨면 우리 가곡을 즐겨듣는다. 선구자나 봉선화 혹은 성불사의 우렁찬 선율이 흐르면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한다. 슬퍼서가 아니다. 감격해서도 아니다. 우리 나이 쯤이면 가곡이란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소리처럼 들려오기 때문이다. 내게 그것이 마치 조국의 목소리처럼 다가와 문득 견디기 어려운 감동을 준다.

일제 때 태어난 우리 세대들은 세 개의 다른 깃발을 바꾸어 꽃고 살았다. 처음 본 일장기가 내 나라 깃발인 줄 알았다. 그 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다가 해방을 맞았다. 어린 시절을 조국이란 단어조차 되뇌이지 못하고 보내야 했던 슬픔에서 헤어 나 필력필력 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우리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른다. 처음으로 눈이 시리도록 찬란한 햇살을 가슴 가득 느껴보았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뜨겁게 다가오는 듯 가슴이 타올랐다. 그때 생각했다. 우리들의 선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어떠했을까? 광복의 새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 앞서간 수많은 주검들. 그분들에게 다시 찾아 '조국'이란 단어는 얼마나 엄청난 환희였을까.

내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1950년 6·25가

일어나던 해였다. 내 젊음과 학문의 꿈을 품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두 달이 채 못되어 붉은 깃발이 세상을 덮쳐왔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다.

서울 하숙집에서 일주일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방향했다.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배고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모든 학생들은 학교로 등교하라는 뉴스를 들었다.

아침 9시. 안암동 석탑을 찾으니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루아침에 인민 의용군으로 신분이 바뀌어 1주일 동안의 빨치산 강행 훈련을 받아야 했다. 목적지도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총대를 둘러메었다. 누군가 포항 지구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수근거렸다. 탈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수원을 지나 남한 전선으로 가는 대행렬 틈 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하는 것에 성공했다. 삶과 죽음이 매순간 엇갈렸다 돌이켜 보면 내 생애의 가장 용감한 순간이었던 것 같다.

15일간 험한 산을 타고 넘으며 그리도 그리웠던 고향 김제에 도착할 수 있었다. 허나 내 고향 땅에도 이미 붉은 깃발이 꽃혀 있었다. 숨죽이고 숨고 숨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또 다른 절망이었다. 석

달쯤 지난 9월 29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했다는 믿을 수 없는 희보가 내 절망의 어둠을 뚫고 전해왔다. 자유가 이 땅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서울의 모든 대학들은 각 지방도시에서 전지 연합대학을 개설했다. 나는 전주의 연합대에 등록을 하고 이제 오로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다는 꿈을 부풀려갔다. 그러나 그 벽차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달 후인 그해 12월, 징집 영장이 날아들었다. 이번에 국군이다. 두번째의 군입대였다.

졸지에 방위군 통역관이 되어 버렸다. 정말로 추웠던 최전선의 한겨울, 그곳에서 미군 3사단의 통역관으로 근무해야 했다. 1년이 지나니 방위군을 해산한다는 조치가 내려졌다. 나는 대구에서 개교한 고려대학으로 복교해 학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또 다시 군대에 가야 할 처지가 되어 버렸다. 방위군이란 정식 군대가 아니라 일선 노무자들은 이끌던 군번 없는 군대라는 논리였다. 1년 동안 나라를 지키다는 신념으로 그토록 부풀었던 학문의 꿈을 접어둔 채 나의 의무를 수행했으나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학을 결심했다.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병역을 연기해준다는 제도가 처음으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 길을 택해야만 할 것 같았다.

독일로 가기로 했다. 유학시험에 합격된 1954년 가을, 최초의 서독 유학생 자격으로 여의도 비행장에서 비행기에 오르던 날, 다시 못 볼 것처럼 눈물을 흘리시던 내 어머니의 손을 쥐며 늠름해 보이던 나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 왔다.

꼬박 닷새의 낮과 밤을 프로펠라 비행기를 갈아타니 「프랑크푸르트」공항에 도착했다. 캄캄한 밤. 허나 낮설은 땅에 발을 디디며 나를 덮쳤던 감정은 오히려 어둠보다 짙은 외로움과 그만큼의 초조함이었다. 것 같다.

북부의 쾰른대학에서 나의 유학생생활을 시작되었다. 쾰른은 2차대전 후 서독경제를 일으킨 루르지방

중심의 상업도시이며, 쾰른대학은 1백년전 독일의 경영학이 창설된 역사적 상아탑이다. 이 도시를 가로질러 라인강이 흐른다. 아침 저녁으로 석탄을 가득 실은 화물선이 강물 가득 메운다. 해질 무렵 그 강언저리에 서면 어디서부터인지 그리움이 불어와 눈물이 흐르곤 했고, 멀리 배고픈 나의 조국의 모습이 끝없이 슬퍼보이기도 했다. 나는 전쟁에서 돌아온 수많은 독일 학생들 틈에서 열심히 학문에 전념했다. 그곳에서 1년을 지낸 후 지도교수를 따라 남부의 뉴렌베르크대학으로 옮겨갔다.

뉴렌베르크대학은 독일의 근대 경제 사상가들이 배출된 곳이며 전후 서독의 경제상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실현시킨 에르하르트 교수, 맑스 웨버 그리고 쉬몰러 교수가 이 대학출신이다. 또한 뉴렌베르크시는 히틀러가 나치당을 창설했던 곳으로 지금도 그가 20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하던 대광장이 역사의 그늘 아래서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4년 동안의 서독 유학 시절은 내게 학문뿐 아니라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게 하였다. 그들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굶힐 줄 모르는 용기와 책임감. 「나」 혼자 아닌 「우리」로 이어지는 강한 연대의식. 그리고 「좋은 경제 정책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신념 아래 생산과 분배의 균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정치·경제인들. 이 모든 힘이 한데 엮어져 복지사회로 비약할 수 있는 사회 안정과 성장된 국민 경제 확립의 거센 원동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고 배웠다.

1958년 가을 나는 뉴렌베르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날 학위 수여식에서 총장은 내게 소중한 축사를 들려 주었다.

“박사학위란 이제 비로소 시작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같고 닮으며 스스로 가꾸어 나갈 때 그 학위와 더불어 자신의 학문이 빛을 내게 되는 것이다. 녹슬고 교활해지면 그것은 쓸모없는 장식품이다.”

한 평생이 지나도록 잊을 수 없는 한 구절을 되새

기며 귀국길에 오른 것은 그해 겨울이었다. 돌아올 여비가 없어 몇 년 더 머물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서울에서 뜻밖의 전문 한 통이 날아왔다. 이승만 대통령에 나의 귀국 여비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정말 기뻐다. 내가 스물 일곱의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최초로 독일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재독 대사가 직접 경무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영광스러웠고 한편 자랑스럽기도 했다. 나는 그 길로 귀국하여 중앙대학교 부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중앙대학교를 택하게 된 것은 은사 최호진 교수와의 인연때문이었지만, 취임 처음부터 임영신 총장의 각별한 처우에 큰 감동을 받았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열기와 눈동자는 일그러진 나의 학창시절을 잊고 신바람나게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예전과 다름없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실에 학생 처 직원이 불쑥 들어왔다. 강의를 중단하고 학생처로 즉시 오라는 것이었다. 그곳엔 경찰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징집 영장을 제시하면서 내가 징병 기피자로 수배되었다고 말했다.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나는 한국전쟁 때 이미 징병 1기로 입대했으나 정기군이 아닌 방위군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정식 군인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병역 미필자로 몰리게 된 것이다.

5·16 군사정부는 혁명 직후 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부패를 일소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그 첫 번째 과업으로 병역 기피자 소탕 작전에 나섰는데 내가 그 기피자로 붙잡히게 되었다.

내 생애 세번째의 입대다. 인민 의용군에서 국군 방위병을 거쳐 이제 다시 육군 이등병이 되는 셈이었다. 수색 예비사단으로 끌려가 하룻밤을 세우고 다음날 새벽 화물차에 태워져 논산 훈련소로 실려갔다.

한여름의 이글거리는 태양과 장대비, 뒤범벅이 되어 타고 흐르는 땀에 영켜서 무덤게 석달을 뛰고 나니 전반기 훈련이 끝났다고 했다.

후반기 훈련이란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을 무렵 서울에서 육군 소령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중대 장실에 불려가 보니 장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나를 서울로 이송시킨다는 얘기였다. 다시 영문도 모른 채 보따리를 꾸려안고 그를 따라 나섰다.

서울역에 내리니 지프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한 마디도 묻지 못한 채 차에 올랐다. 남산 중턱을 돌아내려가 어느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갔다. 이른바 중앙정보부의 총본부라는 곳이었다.

거기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 책임자였던 김종필 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내가 왜 여기까지 송환되어 왔으며 앞으로 무슨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5·16 군사정권과 처음으로 맺게 되는 인연이었다. 한달 정도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난 뒤 나는 육군 일등병의 신분으로 상공부장관 특별보좌관이 되었다.

육군 소장 정래혁 씨가 장관이었다. 그 후에 안 이지만 내가 논산 훈련소 육군 이등병에서 상공부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소환되어온 이면에는 나름대로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5·16정권은 경제 개발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으나 불행히도 선뜻 경제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없었다. 혁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외면과 정상화되지 못했던 일본과의 관계,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없었던 것이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는 통틀어야 2천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니 나라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었다. 이때 생각해낸 것이 서독으로부터 경제원조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서독의 상업차관을 현안 과제로 삼아 육군 중장 신용균 장군을 서둘러 예편시켜 서독 대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던 것이다. 현지 대사관에서 여러 방면으로 전문가를 찾았다. 대사관에서는 내가 얼마 전에 귀국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사실을 지금 전문으로 최고회의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나를 찾아 중앙대학교로 사람을 보냈으나 내가 논산 훈련소에 소집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는 얘기였다. 최고회의에서는 다시 국방부를 거쳐 소속을 밝힌 뒤, 나를 차관 교섭 전문가로 발탁하게 된 것이다. 이어 정래혁 상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서독 경제 협력단을 구성했고 나는 장관 특별보좌관 자격으로 서독에 파견되었다. 우리 일행 일곱 명은 서독 정부와 각 지방 단체를 찾아다니며 우리 경제 사정을 열심히 설명했고, 양국의 경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목이 쉬도록 설명했다.

우리들은 서독 정부와 경제계에 혁명 정부의 참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1억5천 마르크(약 4천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약속했다. 그날 밤 우리 일행은 건잡을 수 없는 눈물과 기쁨 속에서 날을 새웠다.

나는 그후에도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 번 그곳에 파견되었고, 광부와 간호사의 서독 취업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현지 외교관들과 한몸이 되어 열심히 부딪히며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했다.

1963년 여름, 그동안 육군 일등병 신분으로 상공부장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던 3년 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중앙대학교 교수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대학에 돌아온 이후에도 경제개발계획 자문위원직을 필두로 개발년대의 경제정책을 펼쳐오는 데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소장의 자리를 맡게 되었고 우리날 최초의 생산성 운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1964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정부로부터 국민 자격으로 초청을 받고 서독으로 떠나게 될 때

나는 대통령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 울산공업단지를 위시해서 구미, 창원 등 대단위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일들에 대통령 자문역으로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1968년 10월 나는 민간연구기관으로 KID를 창설하여 정부 중요 개발사업에 대한 학술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중화학 공업시대를 열어가는 현장에서 미려하나마 정열을 다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일그러진 학창시절, 세 번의 군입대 그리고 어려웠던 유학시절과 5·16정권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러나 내 나라가 그토록 어려웠던 시절에 내가 조금이나마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내게 준 신명이었으며 영광이었다.

어느 틈엔가 삼십여 년의 시간이 어김없이 흘러 모든 것이 과거로 사라져간다. 나는 또 다시 힘들여 마루턱을 막 넘은 나그네의 마음이 되어 우리들이 걸은 역사의 전경을 내려다 본다. 마루턱에 서면 눈앞뿐 아니라 저 멀리까지 내다보인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련기에 부딪히고 있다. 그토록 힘겹고 어렵게 이룩했던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지 않나 하는 위기감마저 불어닥친다. 지금처럼 치열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과연 지난 날처럼 우리들의 영광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이 물음에 더 이상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오직 잘 사는 조국을 이룩해야 한다는 하나의 신념으로 몸부림쳐왔던 지난 삼십여 년의 발자국. 나는 한 시대를 이끌어온 대약진의 대열에 끼어, 그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학자의 긍지와 내 조국에의 소명감을 지니고 함께 뛰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룩한 성취의 희열과 감동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나는 다음 시대를 우리처럼 이끌어갈 젊은 지성들에게 그 희열과 감동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오늘 어떻게 재조명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잊어버린 경제 이야기」로 들려주고 싶다.